

## 吸煙者와 非吸煙者의 行動樣相 研究

金 和 信\*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흡연이 각종장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러 질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알려졌으며 특히 순환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이 중에서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주요위험인자(major risk factor) 중 하나인 흡연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비흡연군에 비하여 흡연군에서 관상동맥질환이 조기에 잘 발생하며 또한 조기에 발생한 관상동맥질환자의 대부분이 흡연자라는 사실은 강력한 위험인자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은 금연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교정이 가능하며(correctable) 회피할 수 있는(avoidable)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단순히 흡연을 중단함으로써 강력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유해성에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담배가 사회적인 기호품이 되어버린 실정이며 특히 흡연의 행위는 고유의 문화적 배경, 사회적 인습, 경제적 여건, 개인의 성격과 인생관등 여러 요인이 잡다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최신해, 1967).

이러한 흡연행위의 여러 요인 중 개인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격이란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대인

관계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는 독특한 개인의 행동양식이거나 사고방식의 특징적인 조질이라 정의되며 성격에 대한 이론은 매우 다양하나 Framingham의 유형론(Typology)에서는 성격의 유형을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누었으며 A형 행동양상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Friedman과 Rosenman의 분류에 의하면 A유형은 급격한 투쟁의식, 경쟁심, 야망과 인내심 결여 등의 특성과 높은 성취욕, 시간에 대한 긴박감, 복잡한 사고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만성적 갈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어떠한 도전이나 환경조건이 조성되었을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점차 산업사회의 되어 경쟁의식의 고취와 시간적 여유의 결여등 선진국 사람들이 처한 사회환경과 흡사한 환경에 처해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환경은 인간 개개인의 행동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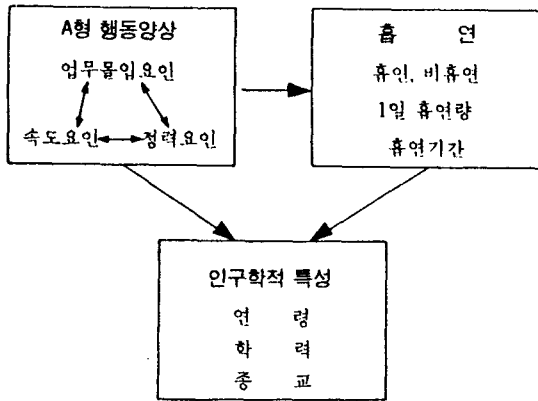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자는 흡연자가 어떤 행동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조사하고 A형 행동양상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 금연에 있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간호중재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다음의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 1)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A형 행동양상을 비교한다.
- 2) 1일 흡연량에 따른 A형 행동양상을 알아본다.
- 3) 흡연기간에 따른 A형 행동양상을 알아본다.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2. 본 연구의 개념틀



<도 1> 연구의 개념틀

## 3. 가설

- 1) 흡연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A형 행동양상을 많이 나타낼 것이다.
- 2) 1일 흡연량이 많을수록 A형 행동양상을 많이 나타낼 것이다.
- 3) 흡연기간이 길수록 A형 행동양상을 많이 나타낼 것이다.

## 4. 용어의 정의

- 1) 흡연자(Smoker)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흡연하고 있는 대상자를 흡연자라고 한다.
- 2) 비흡연자(Non-smoker)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한번도 흡연을 해보지 않은 대상자를 비흡연자라고 한다.
- 3) A형 행동양상  
A형 행동양상이란 보다 적은 시간내에 보다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며, 만일 다른 사람이나 일이 방해가 될 때에는 그것에 대해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특징적인 행위와 정서의 복합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Jenkins가 행동양상 측정을 위해 개발한 Jenkins Activity Survey(JAS)를 수정, 보완한 후 이용하였다. 도구의 문항은 내용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즉 업무몰입요인,

속도요인, 정력요인을 말한다.

## 4) B형 행동양상

A유형들이 표출하는 특성들의 상대적 부재(absence)를 보이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으로, 태평하고 여유있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동양상을 말한다.

## II. 문헌고찰

### 1. A형 행동양상

성격이란 타인이 당사자에게서 받는 특성이며 다소 일관성이 있는 개개의 독특성이 성격의 특징이다. 이는 성격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하며 개인은 제나름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양식 또는 사고양식이 성격의 내용을 이룬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성격이 조직화된 것임을 뜻한다.

성격에 대한 여러 이론중 Framingham의 유형론에 대해 고찰해 보면 이 유형론에서는 성격의 유형을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Friedman과 Rosenman(1959)는 A형 행동양상을

1) 긴장감, 대개 불완전하게 정의된 목표를 제외하고 스스로 선택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며 2) 경쟁의 경향이 있고 3) 인정과 출세에 대한 계속적 욕망 4) 시간제한에 대해 지배를 받으며 5) 신체적, 육체적 기능의 사용을 가속시키기 위한 습관적인 경향 6) 이상한 정신적이고 신체적 경계를 가진 것으로 특징지었다. 이에 반하여 B형 행동양상은 본질적으로 A형과 반대인데 그것은 경쟁, 야심, 절박감, 경쟁의 욕구를 바라거나 또는 마감시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또한 Jenkins(1971)는 A형 행동양상은 극도의 경쟁심, 성취를 위한 노력, 공격적(때로는 엄격하게 억압된), 성급함, 조급함, 불안정, 과잉주의, 폭언, 그리고 책임감, 시간의 압박감으로 인한 감정, 안면근육의 긴장으로 특징지워지는 명백한 행동중후군이라 했다.

실제로 A유형의 사람들은 문제해결능력이 좌절될 때에 더 많은 공격성을 드러내는가 하면(Carver & Glass, 1978), 1분의 경과를 짐작해서 맞추는 과제에서 시간의 경과를 빠르게 느낀다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행동양상을 나타내는 A유형들은 빠른어투, 더딘 것에 대한 참을성 부족, 한번에 한가지 이상의 활동에 관여, 질보다는 양적개념에 입각하여 자신의 활동을 평가, 경쟁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도 타인들과 경쟁하려는 경향, 그리고 쉽게 드러나는 적대감등을 보인다. 이들중

A형 행동양상의 중심특성으로서 지나친 공격성, 쉽게 유발되는 적개심, 시간에 대한 조급함 및 경쟁적인 성취 추구불 기술할 수 있다(Burnam, 1975, Glass, 1977, Matthews, 1982). 그리고 이러한 A형 행동양상은 관심 심 집질환에 있어서 2배 이상의 발병율이 있다는 중난적인 연구결과도 있다.

A형 행동양상이란 보다 적은 시간내에 많은 것을 성취 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며, 만일 다른 사람이나 일이 방해가 될 때에는 그것에 대해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 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특징적인 행위와 정서의 복합체이다. A형 행동양상의 측정은 1959년 이래 Friedman 과 Rosenman에 의해 발달된 Jenkins Activity Survery(JAS)로 A형 행동양상에 대한 개념적 형식화에 기초를 두었으며 이는 61개 문항의 자가보고 설문지로서 조직화된 면담과 72%의 일치도를 보여 그 타당도가 검증되었다(Bortner & Rosenman, 1967). Zyzanski 와 Jenkins(1970)는 1960년 Western Collaborative Group Study(WCGS)대상자 중 707명에게 JAS를 적용시킨 후 요인부차치 0.3 이상의 문항을 선택하여 Varimax형의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그 특성에 따라 3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거의 모두 0.10 이하로 각 요인은 독립적인 가치를 가졌다. A형 행동양 상 측정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항목에 대한 검사로 업무 몰입요인, 속도요인, 정력요인이 적용되었다. 업무몰입요인(Factor-Job Involvement)은 직업활동에 대한 요구 의 표현을 나타내며, 속도요인(Factor-Speed & Impatience)은 시간의 긴박감, 성급함을 나타내고 정력요인(Factor-Hard Driving)은 자신의 정력, 경쟁과 진지한 생각을 포함한다.

Shekelle(1976)은 미국 Chicago 지역주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 및 성별로 4집단으로 분류한 후 A형 행동양상과 사회, 경제상태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A형 행동양상은 Jenkins의 A형 행동척도불 이용하였으며 사회, 경제상태는 학력 및 직업수준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A형 행동양상과 사회, 경제상태와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2. A형 행동양상과 흡연

Friedman(1959)은 A유형군(심한야심, 경쟁적 경향, 직업적 마감시간에 대해 부단히 몰두하며, 시간에 대한 긴박감을 나타냄) 83명과 B유형군(경쟁, 야심, 절박감, 경쟁의 경향 또는 마감시간에 관련이 없음) 83명, 그리고

C유형군(B유형과 유사하나 걱정이나 불안정함을 포함 함) 146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관심동맥질환 여부, 과거와 현재의 질병, 일하고 삼시는 시간, 흡연습관, 모든 형태의 신체활동, 그리고 식습관에 대해 개인 면담한 연구결과에서 A유형군은 67%, B유형군은 56%가 흡연을 했으며 A유형군은 하루 평균 23개의 담배를 피웠고, B유형군은 15개를 피웠으며 관심동맥질환의 유병률이 A유형군이 B유형군 보다 7배나 높았다.

또한 A유형군의 60명은 하루에 10개 혹은 그 이상 흡연하며 이중 16명(27%)이 심질환을 가졌으며 10개 이하를 흡연하는 7명(30%)이 관심동맥질환을 나타냈으며, 반면 B유형군의 과도흡연자 중 단지 2명(4%)과 경흡연자 혹은 비흡연자 37명중 1명이 관심동맥질환을 보였다.

그리고 Multiple Risk Factor Intervention Trial(1985)에서 3110명의 남성에게 대한 행동양상 조사결과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의 양이 A유형군에서는 22.4개로 많았고, B유형군에서는 17.9개로 적어 하루에 피우는 담배의 양이 A/B유형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볼때 과도한 행동양상의 특징이 흡연을 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행동양상을 비교하기 위한 기술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회사원 중에 현재 특별한 질환이 없이 생활하는 30세 이상의 기존 남성 흡연자 120명과 비흡연자 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자들이 연구도구인 설문지에 사가기보 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89년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11일간이었다.

### 3. 연구도구

A형 행동양상 측정도구는 1965년 Jenkins가 개발한 Jenkins Activity Survery(JAS)로서 1986년 중)이 변

역, 수정, 보완한 59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각 항목은 항상 그렇다에 4점, 자주 그렇다에 3점, 가끔 그렇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배정하였다. 그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A형 행동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하였다.

이 도구의 타당도를 보기 위해 Varimax법 직각회전 요인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8634의 신뢰도를 보였다.

요인별 문항수 및 점수의 범위는 <표1>과 같다.

<표1> 요인별 문항수 및 점수범위

요 인	문항수(개)	점수범위(점)
업무몰입요인	21	21-84
속도요인	21	21-84
정력요인	9	9-36
A형 행동척도	51	51-204

####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표준화 검사는  $\chi^2$ -test를 이용하였다.
- 2)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A형 행동양상은 t-test를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A형 행동양상은 ANOVA로 분석하였다.
- 4) 1일 흡연량과 흡연기간에 따른 A형 행동양상은 t-test를 이용하였다.
- 5) 3가지 특성요인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타당도 검사로 Varimax Factor Analysis를 시행하였다.
- 6)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적률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상 일부 직장에서 선정하였으므로 흡연자 모두에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최종학력, 종교 등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표준화 검사를 시행하였다(<표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흡연군에서는 30-39세가 41.7%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49세로 30%, 50-59세가 26.6%, 60세 이상이 1.7%로 연령이 많을수록 흡연하는 사람이 적었다.

비흡연군에서는 30-39세가 30%, 40-49세가 40%, 50-59세가 30%로 두 군의 연령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별로는 흡연군에서는 중졸이 5%, 고졸이 67.5%, 대졸이상이 7.5%로 고졸이 가장 많았고, 비흡연군에서는 중졸이 1.1%, 고졸이 77.8%, 대졸이상이 2.1%로 역시 고졸이 가장 많았다. 두군에서 최종 학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흡연군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30%, 없는 경우가 70%였고 비흡연군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48.9%, 없는 경우가 51.1%로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두 군의 종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7.781, p=0.005$ ). 이는 정경임(1980)의 연구에서 흡연자중 종교가 없는 경우가 59.4%, 있는 경우가 40.6%로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관습상 종교인들은 흡연을 삼가한다고 하는데 이는 민병근(1976)의 보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

일반적	특성구분	흡연군		비흡연군		x <sup>2</sup> -test	p-value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연령	30-39	50	41.7	27	30	5.112	0.164
	40-49	36	30	36	40		
	50-59	32	26.6	27	30		
	60-	2	1.7				
최종학력	중졸	6	5	1	1.1	3.937	0.140
	고졸	81	67.5	70	77.8		
	대졸이상	33	27.5	19	21.1		
종교	유	36	30	44	48.9	7.781	0.005**
	무	84	70	46	51.1		
계		120	100.0	90	100.0		

\*p<.05    \*\*p<.01    \*\*\*p<.001

2.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A형 행동양상 비교

A형 행동양상은 업무몰입요인, 속도요인, 정력요인으로 구분되는데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A형 행동양상을 비교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업무몰입요인은 흡연군이 57.43, 비흡연군이 50.36으로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5.7147, p=0.0001), 속도요인은 흡연군이 38.00, 비흡연군이 34.00으로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t=4.6756, p=0.0001), 정력요인도 흡연군이 20.55, 비흡연군이 15.92로 두 군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0822, p=0.0001).

그리고 총 A형 행동양상은 흡연군이 129.13, 비흡연군이 112.53으로 평균 17점이 높아 두 군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1224, p=0.0001).

관상동맥질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한 Jenkins(1971)의 연구에서는 세요인 중 정력요인이 가장 의미 있게 높았고, 송경자(1986)의 연구에서는 속도요인이 의미

있게 높았으며 관상동맥질환자만을 대상으로한 유혜라(1989)의 연구에서는 업무몰입요인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요인과 총 A형 행동양상이 모두 의미있게 높았다.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라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가설 1)인 "흡연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A형 행동양상을 많이 나타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이것은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직업활동에 대한 요구의 표현과 시간에 대한 압박감, 성급함을 나타내며 경쟁적이고 정력적으로 일한다고 시료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A형 행동양상 비교

1) 연령에 따른 A형 행동양상 비교

연령에 따른 A형 행동양상 비교

업무몰입요인은 30-39세의 경우 55.37, 40-49세는 51.76, 50-59세는 55.89, 60세 이상은 68.00으로 연령에

〈표3〉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A형 행동양상 비교

행동양상요인		평균	t	p-value
업무몰입요인	흡연군	57.43	5.7147	0.0001***
	비흡연군	50.36		
속도요인	흡연군	38.00	4.6756	0.0001***
	비흡연군	34.00		
정력요인	흡연군	20.55	8.0822	0.0001***
	비흡연군	15.92		
총 A형 행동양상	흡연군	129.13	8.1224	0.0001***
	비흡연군	112.53		

\*p<.05    \*\*p<.01    \*\*\*<.001

차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96, p=0.0090$ ).

속도요인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력요인은 30-39세의 경우 19.58, 40-49세는 17.77, 50-59세는 17.86, 60세 이상은 29.00으로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39, p=0.014$ ).

총 A형 행동양상은 30-39세는 125.38, 40-49세는 118.22, 50-59세는 121.44, 60세 이상은 146.00으로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56, p=0.0015$ ). 이상과 같이 연령에 따른 행동양상요인 중에서 속도요인을 제외한 업무몰입요인, 정력요인 그리고 총 A형 행동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혜라(1989), Bortner 와 Rosenman(1967)의 결과에서는 연령에 따른 A형 행동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학력에 따른 A형 행동양상 비교

〈표 4〉 연령에 따른 A형 행동양상 비교

행동양상요인	연령				F	p-value
	30-39	40-49	50-59	60세이상		
업무몰입요인	55.37	51.76	55.89	68.00	3.96	0.0090**
속도요인	37.09	36.11	35.38	38.50	0.38	0.4806
정력요인	19.58	17.77	17.86	29.00	5.39	0.0014**
총 A형 행동양상	125.38	118.22	121.44	146.00	3.56	0.0015**

\* $p<.05$     \*\* $p<.01$     \*\*\* $p<.001$

〈표 5〉 학력에 따른 A형 행동양상 비교

행동양상요인	종교			F	p-value
	중졸	고졸	대졸이상		
업무몰입요인	49.42	59.97	56.32	2.10	0.1246
속도요인	33.85	36.49	36.01	0.59	0.5577
정력요인	19.57	17.82	20.61	6.67	0.0016**
총 A형 행동양상	114.42	121.07	125.76	2.14	0.200

\* $p<.05$     \*\* $p<.01$     \*\*\* $p<.001$

〈표 6〉 종교에 따른 A형 행동양상 비교

행동양상요인	종교		t	p-value
	유	무		
업무몰입요인	53.86	54.73	1.33	0.0164
속도요인	35.46	36.80	1.50	0.0527
정력요인	17.86	19.00	1.50	0.0474*
총 A형 행동양상	119.91	123.31	1.69	0.0126*

\* $p<.05$     \*\* $p<.01$     \*\*\* $p<.001$

학력에 따른 A형 행동양상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력에 따른 업무몰입요인, 속도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력요인은 중졸이 19.57, 고졸이 17.82, 대졸이상이 20.61로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67, p=0.0016$ ). 그리고 총 A형 행동양상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종교에 따른 A형 행동양상 비교

종교의 유무에 따른 A형 행동양상을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업무몰입요인과 속도요인은 종교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력요인은 종교가 있는 경우가 17.86, 종교가 없는 경우가 19.00 종교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50, p=0.0474$ ).

총 A형 행동양상은 종교가 있는 경우가 119.91이었고 없는 경우가 123.31로 종교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69, p=0.0126$ ).

4. 1일 흡연량에 따른 A형 행동양상 비교

1일 흡연량에 따른 업무몰입요인, 속도요인, 정력요인, 그리고 총 A형 행동양상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7). 따라서 가설 2) "1일 흡연량이 많을수록 A형 행동양상을 많이 나타낼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F=1.78, P=0.1384$ ).

이 결과는 흡연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클 수 있지만 A형 행동양상의 정도와는 무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한편 김성주(1981)는 1일 흡연량과 질병과의 연구에서 심장병, 만성기관지염, 폐기종의 경우 흡연량이 많을수록 이환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5. 흡연기간에 따른 A형 행동양상 비교

흡연기간에 따른 업무몰입요인, 속도요인, 정력요인, 그리고 총 A형 행동양상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8).

따라서 가설 3)인 "흡연기간이 길수록 A형 행동양상을 많이 나타낼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흡연기간 역시 인체에 미치는 해는 크지만 A형 행동양상과는 무관함을 보이는 결과로 사료된다.

6. A형 행동척도의 요인간의 상관관계

A형 행동척도의 3가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업무몰입요인과 정력요인간에는( $r=0.43, p=0.0001$ ), 속도요인과 정력요인간에는( $r=0.33, p=0.0001$ ), 업무몰입요인과 속도요인간에는( $r=0.27, p=0.0001$ )으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9).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A형 행동양상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관상동맥질환의 주요위험요인이 흡연과 A형 행동양상이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흡연자에서 A형 행동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금연과 아울러 행동양상의 조절을 통해 주요위험요인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현재 특별한 질환이 없이 생활하는 30세 이상의 기혼남성흡연자 120명과 비흡연자 90명을 대상으로

<표7> 1일 흡연량에 따른 A형 행동양상 비교

행동양상요인	흡연량(개)				F	p-value
	1-10	11-20	21-30	31-		
업무몰입요인	58.80	55.87	60.28	52.57	1.80	0.1330
속도요인	37.66	38.06	40.35	35.28	0.83	0.5071
정력요인	21.58	20.27	20.64	18.28	0.95	0.4354
총 A형 행동양상	132.72	127.16	134.42	118.00	1.78	0.1384

\*p<.05    \*\*p<.01    \*\*\*p<.001

<표8> 흡연기간에 따른 A형 행동양상 비교

행동양상요인	흡연기간(년)				F	p-value
	1-10	11-20	21-30	30-		
업무몰입요인	57.00	58.21	57.07	55.55	0.25	0.8623
속도요인	38.00	38.05	38.35	36.22	0.23	0.8738
정력요인	21.66	20.45	19.61	22.66	1.30	0.2779
총 A형 행동양상	130.04	130.25	128.07	125.22	0.30	0.8240

\*p<.05    \*\*p<.01    \*\*\*p<.001

<표9> 요인간의 상관관계

구분	업무몰입요인	속도요인	정력요인
업무몰입요인	1.00		
속도요인	0.27 (p=0.0001)	1.00	
정력요인	0.43 (p=0.0001)	0.33(p=0.0001)	1.00

1939년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11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Jenkins Activity Survey(JAS)를 이용하였으며 타당도 검사를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업무몰입요인, 속도요인, 정력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1문항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  $\chi^2$ -tes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업무몰입요인( $t=5.7147$ ,  $p<.0001$ ), 속도요인( $t=4.6756$ ,  $p<.0001$ ), 정력요인( $t=8.0822$ ,  $p=.0001$ ), 그리고 총 A형 행동양상은( $t=8.1224$ ,  $p=.0001$ )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인 "흡연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A형 행동양상을 많이 나타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2. 흡연량에 따른 A형 행동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인 "1일 흡연량이 많을수록 A형 행동양상을 많이 나타낼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3. 흡연기간에 따른 A형 행동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 "흡연기간이 길수록 A형 행동양상을 많이 나타낼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행동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금연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A형 행동양상을 고려하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인체에 미치는 해로움의 정도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나 흡연량과 흡연기간은 A형 행동양상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정상인군과 관상동맥질환자군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흡연과 A형 행동양상과의 관계를 파악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행동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김성주, 한국 의사들의 흡연양상과 증상 및 질병과의 관계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민병근, 이길홍, 한국 청소년의 흡연양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논문집, 1976, 53-80.
- 송경자, 관상동맥질환자와 정상인의 행동양상 비교연구 - 수정된 Jenkins의 A형 행동양상척도를 이용하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유해라, 관상동맥질환자의 A형 행동양상과 대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정경임, 일부 남자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1980, 19(1), 60-67.
- 최신해, 금연의학, 대한의학협회지, 1967, 10, 577-580.
- Bortner, R.W., Rosenman, R.H., The measurement of Pattern A behavior, *Journal of chronic Disease*, 1967, 20, 525-533.
- Burnam, M.A., Pennebaker, J., W & Glass, D.C., Coronary-prone behavior, *Journal of Chronic Disease*, 1975, 20, 76-79.
- Carver, C.S., & Glass, D.C., Coronary-prone behavior pattern and interperson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8, 36, 361-366.
- Friedman, M., Rosenman, R.H., Association of specific overt behavior pattern with blood and cardiovascular findings,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59, 21, 12-1296.
- Glass, D.C., *Behavior Pattern, Stress and Coronary Disease*, Hillsdale, NJ, Ealbaum, 1977.
- Jenkins C.D., Psychological and social precursors of coronary disease(second of two part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971, 284, 307-317.
- Matthews, K.A., & Brunson, B.I., Allocation of attention and the Type A coronary-prone patter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9, 37, 2081-2090.
- Rosenman, R.H., Brand, R.J., Jenkins, C.D.,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Werstern Collaborative Group Study, final follow-up experience of 82 / 1 years,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75, 233, 872-877.
- Shekelle, R.B., Correlation of the JAS type A behavior pattern score, *Journal of Chronic Disease*, 1976,



29, 381-394.

Zyzanski, S., Jenkins, C.D., Basic dimensions within the coronary-prone behavior pattern, *Journal of chronic Disease*, 1970, 22, 781-795.

-Abstract-

### A Study on Behavior Patterns Between Smokes and Non-Smokers

Kim, Hwa Shin\*

Clinical and epidemiologic studies of coronary heart disease(CHD) have from time to time over the last three decades found associations between prevalence of CHD and behavioral attributes and cigarette smoki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reduced to major risk factor of coronary heart disease through prohibition of smoking and control of behavior pattern.

The subjects consisted of 120 smokers and 90 non-smokers who were married men older than 30 years working in officers.

The officers were surveyed by means of questionnaire September 26 through October 6, 1989.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as a self-administered measurement tool composed of 59 items was made through modifications of Jenkins Activity Survey(JAS).

The Data were analysed by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 personal computer.

The statistical technique used for this study were

Frequency,  $\chi^2$ -tes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15 items were chosen with items above 0.3 of the factor loading in the factor analysis. In the first factor analysis 19 factors were extracted and accounted for 86% of the total variance. However when the number of factors were limited to 3 in order to derive Jenkins classification, three factors were derived. Their names are Job-Involvement, Speed & Impatience, Hard-Driving. Each of them includes 21 items, 21 and 9,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

1. The score of the smoker group and non-smoker group in Job-Involvement( $t=5.7147, p<0.0001$ ), Speed & Impatience( $t=4.6756, p<0.0001$ ), Hard-Driving( $t=8.0822, p<0.0001$ ) and total type A behavior patter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8.1224, p<0.0001$ ).
2. The score of type A behavior pattern by number of cigarettes smoked dail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3. The score of type A behavior pattern by duration of smoking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t was conclud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ers and non-smokers of type A behavior patter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ut number of cigarettes smoked daily and duration of smoking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Therefore this study is needed to adequate nursing intervention of type A behavior pattern in order to elevated to educational effect for prohibition of cigarette smoking.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